

■ 2023년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봉준, 유종인, 한영인, 홍명진, 황선미

이 사업은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 발간을 지원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비평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인들의 작품 및 담론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원고료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기초적인 창작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번 심의에는 총 41건이 신청되었다. 다섯 명의 심의위원은 먼저 제출된 서류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심의를 진행했고, 11월 25일에 진행된 대면 회의에서 1차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적절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했으며, 심의는 이미 제시된 세 가지 기준, 즉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3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30%), 문학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40%)에 맞춰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7억 4천) 가운데 6억 5천만원 가량이 이미 선정된 다년 지원 대상에게 지원됨으로써 이번 심의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수의 문예지만을 선정할 수 있었다.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불과 5종 내외의 잡지만 선정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콘텐츠의 수준이 뛰어나고 잡지 발간의 환경이 좋은 소수의 잡지만 지원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심의위원 들은 지원금액을 줄여서라도 가급적 많은 종수의 잡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리하여 호당 400만 원 정도이던 지원금액을 300만 원으로 낮추고, 선정 종수를 조금이나마 늘리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지원 금액의 감액 규모와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액을 일괄 하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논의과정에서 장르나 지역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너무 적고, 다년 지원이 아니라 단년(1년) 지원 방식에 신청한 잡지 가운데도 한국문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잡지가 많아서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 다년 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한정된 예산의 대부분이 다년 지원에 투입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단년 지원에 신청한 문예지의 지원 가능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문예지는 발행 주체의 역량이나 출판사의 규모에 따라 콘텐츠의 수준이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정된 문예지가 내년에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게 되면 신규 매체나 영세한 매체의 선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듯하다.

선정된 문예지에는 축하의 인사를, 선정되지 못한 문예지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과거와 달리 출판시장에서 문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져 모든 매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잡지를 꾸려나가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원금이 절실한 문예지가 많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원금 심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심의위원들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문예지가 수혜를 입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심의위원 일동